

광주에서 요즘 뜨는 업종 ‘한식업’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분석

통신판매업·부동산중개업도 인기 커피숍·피부관리업 사업자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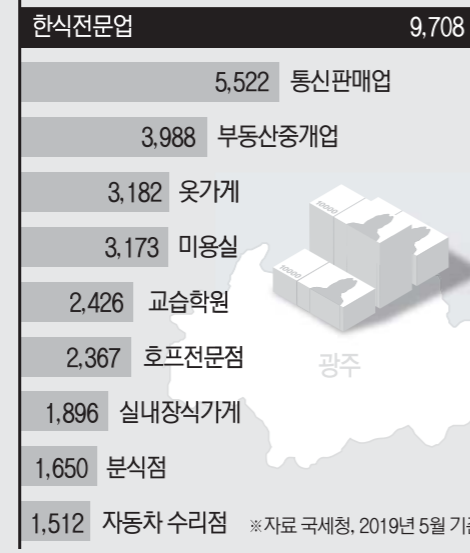
광주지역 생활업종 종사자 100명 가운데 14명은 한식전문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통신판매업과 부동산중개업, 옷가게, 미용실 순이다. 또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커피음료점·피부관리업과 같은 업종도 크게 성장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세청의 광주지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5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와 음식, 숙박, 서비스에 속하는 것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을 판매·취급하는 업종을 말한다.

광주지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총 6

■ 광주 대표 자영업종은?



만8천951곳(개인·법인 포함)으로 한식전문점(9천708곳)에 종사하는 이가 가장 많았다. 전월 대비 39곳, 전년 동월 대비 186곳 늘었다.

다음으로는 통신판매업(5천522곳)과 부동

산중개업(3천988곳)이 차지했으며 각각 전달과 비교해 96곳·19곳,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천71곳·342곳 더 많아졌다.

상위 10위권 내에는 옷가게(3천182곳), 미용실(3천173곳), 교습학원(2천426곳), 호프전문점(2천367곳), 실내장식가게(1천896곳), 분석점(1천650곳), 자동차수리점(1천512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피부관리업(1천503곳), 식료품가게(1천491곳), 커피음료점(1천378곳), 화장품가게(1천134곳), 노래방(1천95곳), 예술학원(1천89곳), 패스트푸드(1천41곳), 편의점(1천33곳)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습소·공방방, 부동산중개업, 정육점, 커피음료점, 통신판매업, 편의점, 피부관리업, 한식전문점, 화장품 가게 등이 두 자릿수 늘어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으로 꼽혔다. 상승수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 성향이 달라지면서 뜨고 있는 분야다.

뉴스룸=주현정기자 doi185@srb.co.kr·김경민기자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은 지난달 28일 광양에 위치한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6회 중소기업 경영자문 상담회'를 개최했다.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제공

전남중기진흥원, 맞춤형 경영 자문 ‘호응’

‘중기 경영자문 상담회’ 성황 “기업 경쟁력 강화 큰 도움”

전남중소기업진흥원(원장 우천식)은 지난 28일 광양에 위치한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기업 CEO 출신 경영자문단과 지역 중소기업 26개사 및 자문위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26회 중소기업 경영자문 상담회’를 개최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와 함께 한 이번 행사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CEO와 임원진 출신으로 구성된 정상급 경영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대표들과 1대 1로 마주해 경영전략, 자금·재

무, 마케팅, 기술·생산·품질 등 중소기업들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유원형 자문위원장은 “이번 경영자문상담회가 일회성 상담회로 끝나지 않고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해 기업 성장동력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양에 있는 물류 업체인 아이젠스타 반재경 대표는 “불황 여파로 업계가 힘든 게 사실이지만 이번 상담회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을 위한 1대1 밀착 컨설팅을 받으면서 관련 고급 정보와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동부출장소는 중소기업

업 육성자금 상담과 수출역량 향상을 위한 FTA 활용 수출 애로사항 및 상담 등을 밀착 관리해 동부권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26회째를 맞이한 경영자문 상담회는 대기업 출신 고급자문인력의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선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모델이자 1대1 기업 맞춤형 지원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다.

우천식 원장은 “향후 권역별로 중부권에서도 경영자문 상담회를 실시하겠다”며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현장기동단 운영 등 기업맞춤형 맞춤형 현장컨설팅·교육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의 편의 향상과 혁신역량 강화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석호기자 haila2000@srb.co.kr



한전KPS는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정경진대회'에 참가해 대통령상 금상(2팀)과 동상(1팀)을 수상했다.

전국품질분임조정경진대회 ‘金·金·銅’

한전KPS 우수사례 ‘성공’

국내외 화려, 원자력, 수력, 송변전 등 전력사업의 설비안전성 향상을 견인하고 있는 한전KPS(사장 김범남)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경상남도 거제시가 공동주최한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정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금상(2팀)과 동상(1팀)을 수상했다. ‘산업계의 품질혁신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전국체전’으로 불리는 전국 품질분임조정경진대회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경남 거제시 대명리조트에서 전국 지역예선을 통과한 299개 분임조 8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 한전KPS는 우수사례 ‘Jump 분임조’와 태안사업처 ‘늘봄분임조’가 현장개선

분야에 참가해 각각 금상과 동상을 수상했으며, 한울1사업처 ‘비추미분임조’가 안전품질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금상을 수상한 우수사례 ‘Jump 분임조’는 ‘발전 순환수 공급 공정 개선으로 정비시간 단축’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전KPS 관계자는 “한전KPS의 완벽한 정비 품질 체계 구축과 품질혁신을 통해 이번 전국 품질분임조정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고객설비에 대한 완벽한 정비서비스를 제공해 나갈으로써 ‘새롭게 도약하는 KPS’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철기기자 dous18309@srb.co.kr

광주·전남 ‘빈집’ 각각 3만7천·11만9천호

30년이상 비우 전남 가장 높아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늘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빈집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8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142만호로 전년 126만5천호에 비해 15만5천호가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빈집이 77만2천호로 가장 많았다. 전년에 비해 15.3%(10만3천호)나 급증했다. 단독주택은 전년 보다 2만2천호가 증가한 33만2천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만호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북 13만7천호(9.6%), 경남

13만2천호(9.3%)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도 경기도로 28.0% 늘었다. 반면 대구와 세종은 각각 7.5%와 0.8% 줄었다.

광주지역 빈집은 3만4천호에서 3만7천호로 늘었으며, 전남도 11만호에서 11만9천호로 9천호 증가했다.

또 빈집 142만호 중에서 30.5%인 43만3천호는 30년 이상된 주택으로 조사됐다.

30년 이상된 빈집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었다.

전남 빈집 11만9천호 중에서 30년 이상된 빈집은 6만호로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

광주는 30년 이상된 빈집 비율이 31.2%를 기록했다. 박석호기자 haila2000@srb.co.kr

(주)해양에너지, ‘위기 대응’ 비상훈련

도시철도 2호선공사 등 대비

해양에너지(대표 김형준)는 지난 29일 전 임직원과 공사 협력업체, 고객센터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가스사고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비상조치 매뉴얼에 따라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사 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비상훈련은 광주 남구 송하동 효천역 인근에 매설돼 있는 도시가스 배관 주변에서 하수관 공사 중 굴삭기 천공작업에 의해 도시가스 배관이 손상돼 다량의 가스 누출이 발생한 가상 상황을 설정해 실시됐다. 이어 누설된 가스가

하수관에 유입돼 폭발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도상 훈련과 실제 현장에서 응급조치와 복구하는 훈련을 동시에 실시했다..

실제 현장 훈련은 사고 발생부터 연락 체계, 출동 및 응급조치, 비상대책본부에 가동해 현장의 상황을 수시로 지시하는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사고발생 지점으로 가상 설정된 효천역 인근 사고현장과 응급복구 상황을 드론과 넥밴(뒷목에 머리띠를 두른 듯한 모양으로 된 것)카메라를 이용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등 전사비상훈련에 첨단 IoT기술을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도철기기자 dous18309@srb.co.kr

“우리 회사 특허·신기술 주목해 주세요”

익산국도청, 합동홍보회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신생 및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신기술과 특허 등 우수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목을 받았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청장 김철홍)에 따르면 지난 29일 익산청 대회의실에서 도로와 하천공사 관련 발주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자재·기술 합동홍보회’가 열렸다.

이날 합동홍보회에는 익산청과 4개 국도사무소, 10개 설계·영업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업체들의 발표를 지켜봤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업체는 총 10개사로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익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희망한 업체들이다.

가드레일 지주 지지력 보강재 관련 특허를 보유한 A업체 대표는 타공법과 비교해 최단 시간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무콘크리트 공법 사용으로 친환경적이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경제성을 강조했다. 또한 IoT기술을 접목한 교통안전 시설물 분야의 B업체 대표는 태양광 LED를 활용한 무선 교통제어 시스템으로도 시인성을 증진해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된 사례를 제시했다. 박석호기자 haila2000@srb.co.kr

소·돼지·닭고기 연말까지 내림세

소비 주는데 생산·수입 늘어 농가 입식 마릿수 조절 필요 “브랜드화로 경쟁력 높여야”

한우를 비롯한 소고기는 물론 돼지고기와 닭고기까지 연말까지 꾸준히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소비가 줄고 있지만 생산량이 늘고 수입량까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여전히 입식 마릿수를 늘릴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농가의 신중한 번식과 입식 판단은 물론 고급육 생산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한우육 사육 마릿수는 325만2천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 이 가운데 한우는 1세 미만과 가임암소가 늘어난 310만5천마리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우 가임암소는 147만2천마리로 3.4% 늘었고 송아지도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58만1천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는 또 지난해 늘어난 1세 미만 마릿수의 영향으로 올해 1~2세 마릿수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올 상반기 가구당 평균 구매량 조사 결과, 구매 횟수는 물론 구매량이 지난해보다 줄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가구당 한우 구매량은 지난해 0.75kg에서 0.71kg으로 줄었고 수입육도 1.23kg에서 1.13kg으로 감소했다.

돼지의 경우 모돈 사육수가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난 6월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사육두수는 지난해보다 0.1% 정도 늘어난 1천132만마리로 조사됐다.

1월에서 7월까지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는 1천19만마리로 지난해보다 2.8% 증가했고 8월 하루 평균 등급 판정 마릿수도 6만3천312마리로 지난해 8월 5만8천846마리보다 크게 늘었다. 그렇지만 1~7월까지 돼지고기 구매량(4주 평균)은 1.86kg으로 지난해 1.89kg보다 1.6% 감소했다.

이에 따라 1~7월까지 돼지고기 도매값은 kg당 지난해 4천426원보다 12.6% 떨어진 3천824원을 기록했다. 8월에도 4천55원에 거래됐다.

돼지고기 수입은 중국에서 확산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국제 시세가 오르는 바람에 줄고 있지만 모든 마릿수가 여전히 많아 올해 말까지도 자돈 생산이 늘어 전체 사육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월 산지의 닭고기값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육두수가 늘어남에다 여름철 무더위가 지난해보다 덜해 폐사율이 낮아졌고 출하되고 있는 닭들의 체중도 높아져 공급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생계유통가격은 생계 kg당 1천206원으로 지난해 1천872원과 평년의 1천498원보다 떨어졌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볼 때 육용종계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보다 12% 많은 929만마리로 추정되고 있고 이 가운데 병아리를 생산하는 성계도 2.2% 증가한 490만마리다.

도철기기자 dous18309@srb.co.kr